

진짜 평등한 사회에서 살기 위한 외침

- 마이클 샌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와이즈베리, 2012. 을 읽고 쓴 서평

/ 전북여고 3학년 반 0000@naver.com

‘요즘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기는 할까? 돈이면 나는 새도 떨어진다는데 돈으로 못 할게 뭐가 있겠어?’

이 책을 읽기 전 19년 인생 중 처음으로 돈에 대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남들보다 돈이 많으면 행복이 배가 될 것 같았고 꿈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낄 것 같지 않았다. 텔레비전 뉴스를 봐도, 신문 기사를 읽어도 돈 많은 집안에서 일명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아무 걱정 없이 그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난 뒤 돈이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이 곧 올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되었고 돈에 대한 내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두 눈으로 직접 봤음에도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돈이면 다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속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졌고 그들이 이 책을 꼭 읽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이념이 ‘평등’ 이라고?

돈이면 다 되는 마당에 완벽한 평등을 기대해서는 안 돼.

자유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자유’, ‘평등’, ‘인권’이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할수록 시장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었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이념이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 되고 있다.

일정 돈을 더 주면 놀이공원이나 무료 콘서트장에서 긴 시간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시간에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대리모를 고용하면 되는 것이고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을 사냥하고 싶다면 사냥할 권리를 돈주고 사면 된다. 자녀의 창창한 앞날을 위해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키고 싶다면 상당한 금액을 대학에 기부하면 된다. 얼굴도 모르는 65세이상 노인이나 중증 환자, 시한부 환자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투자하면 그 사람이 죽은 뒤 막대한 금액을 벌어들일 수도 있다. 심지어 유럽 연합은 탄소배출 시장을 운영하여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했고 유럽에서 대기에 탄소를 배출할 권

리는 1톤에 13유로로 거래된다. 경쟁력과 경제력을 갖춘 기업은 당연히 탄소 배출권을 더 많이 갖게 되어 기업의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기업의 이익을 높이게 된다. 불이익을 받는 기업은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경기장에 기업 홍보를 목적으로 각종 기업은 엄청난 비용을 투자한다. 이 역시 결국 돈 많은 기업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 상승은 물론 기업의 이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다.

돈이 돈을 부른다고 했던가,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세상 논리가 되어버렸다. 돈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악행들은 신분 계급에 따른 차별과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지위, 경제력에 따른 차별이 당연히 되었던 사회의 모습이 21세기 사회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암시하여 자유 민주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돈의 짜릿한 맛을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특별한 위치에 서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한 욕구 충족을 개인의 자유로만 여겨 그에 따른 폐해를 등한시 한다면 지금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돈에 의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에 시장과 시장가치의 막대한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말을 할 수도, 생각을 할 수도 없는 물건에 불과한 돈에 의해 인간이 지배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시장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에 시장이 개입하지 않도록 전 인류가 나서야 한다.

한국 사회의 물질 만능 주의 세태에 대해.....

“당신의 양심은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회 역시 예외는 아니다. 마이클 샌델이 제시한 외국의 다양한 사례처럼 한국에서도 물질 만능 주의 세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매매와 교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단연 ‘성’관련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소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는 ‘성매매’에 관한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상식적으로 그러한 것이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물론, ‘돈’ 또는 특정한 대가 없이 여성과 남성이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성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돈’이나 특정한 대가의 교환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여성이 남성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이 되는 것 또는 그 반대의 경우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엄연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인간은 결코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존엄한 존재이며 인

간의 가치는 물질적인 것으로 절대 환산할 수 없지만 ‘돈이면 다 되지.’라는 생각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볍게 무시한다. 현실적으로 성매매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는 없다. 성매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란 쉽지 않고 그저 발각된 사건만을 처벌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로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진 개인의 의식 전환 밖에는 없다. 아무렇지 않게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양심은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회의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는 물질 만능 주의 세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 한국 사회의 법조계에서 일어나는 비리는 비일비재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 방법 역시 개인의 의식 전환이 최선의 해결방법이 아닐까 싶다. 돈만 있으면 없던 죄도 생겨나고 있던 죄도 없어지고..... 판결문 하나 새로 쓰는 일은 일도 아니다. 청렴하고 성실한 많은 법조인들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지만 몇몇 비리변호사, 판사, 검사 때문에 이 분야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것이다.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이 사람들에게 돈이나 특정한 대가를 매개로 ‘거래’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 어떻게 보면 물질 만능 주의에 의해 이 분야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는 알면서도 딱히 손을 쓸 방법이 거의 없어 그냥 욕이나 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그 문제보다 더 끔찍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법조계 관련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게도 묻고 싶다. “당신의 양심은 안녕하십니까?”

돈 없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 속에서 진짜 평등을 원하는 사람들의 외침

show me the money 돈 없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
give me the money 돈만 주면 뭐든 다 되는 세상
...

그놈의 돈 때문에, 어딜가나 돈 때문에
사람 인생 하나 바뀌는 건 시간문제
그놈의 돈 때문에, 어딜가나 돈 때문에
사람은 물고 뜯고 싸움을 즐기며 살아가지 돈 때문에

두 눈을 감고 네가 보고 싶은 세상을 봐
두 귀를 막고 네가 듣고 싶은 세상 애길 들어

용감한 녀석들, I 돈 care 中

몇 년 전 개그콘서트에서 큰 인기를 얻은 용감한 녀석들의 ‘ I 돈 care ’라는 곡이다. 개그맨 특유의 센스를 담아 물질 만능 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꼬집

어 드러낸 곡인데 가사 한 줄 한 줄이 가슴에 와 닿았다.

비록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돈이 없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들까지도 사려고 든다. 돈은 인간에게 아주 유용한 물건이고 돈이 없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혼란에 빠질 것이지만 언제부터인가 돈은 인간을 돈이 주는 쾌감, 만족감에 사로잡히게 했고 거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중독성 강한 물건이 되어버렸다.

돈이 있으면 좀 더 빠르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돈이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다.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실현시키는 일은 돈이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일이 아니다.

언제까지 ‘돈 없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에서 살 수는 없는 노릇. 돈이 만들어진 본래 목적을 생각하며 진정한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마이클 샌델이 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완벽한 평등을 필요로 하지 않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돈 때문에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된다. 올바른 방법으로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고 돈을 벌기에만 급급해서,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그 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단지 돈이 더 많다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시장 논리의 지배를 이제는 정부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물질 만능 주의를 조장하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며 가정과 학교 등에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고를 전제로 한 경제관념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돈이 원수가 되지 않는 사회.’, ‘인류의 전통적 가치까지 파고든 시장과 돈에 의해 차별받거나 고통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사회’ 야말로 전 인류가 외치는 진짜 평등이 실현된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글을 마무리 하며

살면서 서평을 쓰는 일이 어찌면 이번이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책을 선정했고 책을 통해 내가 느낀점과 서평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그래서 단지 국어과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또 다른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사회 구조 개혁에 힘쓰는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과제를 수행했다.

마이클 샌델의 책은 독자들이 어려운 개념과 이론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

을 두었다. 그의 논리적인 서술 방식은 책의 논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수많은 문제와 그에 대한 사례를 제시한 반면 명쾌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던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다. 해결방안 인 듯 보이는 문장들은 내 마음에는 썩 와 닿지 않는 추상적인 방안들뿐이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기도 했고 저자는 마치 열린 결말을 주고 결말을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는 전개처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독자들이 깊이 고민하여 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직접 모색해보기를 바랐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저자의 의도를 읽음으로써 단순한 글 읽기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사고’하며 글을 접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잘못된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겠다는 의지를 심어준 마이클 샌델의 최고의 작품 덕에 진짜 평등한 사회의 모습을 그리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성숙한 사고를 통해 한 뼘 더 성장했음을 몸소 느꼈다.